

■ 삼성그룹 저소득층 학습지원 서울대 '드림클래스' 가보니

“대학생 언니와 수업...공부가 즐거워요”

지난 8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 220동 201호 강의실. 여중생 10명이 중1-2학기 수학 선행학습을 하고 있었다. 정식 수업은 아니었지만 학생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여강사는 학생들과 삼각형 정역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수업을 이끌어갔다.

강사 여효빈(여·20·서울대 윤리교육과 1년)씨가 “삼각형의 결정조건은...”이라고 묻자, 학생들은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요” 등 잇따라 답을 쏟아냈다. 여 강사는 삼각형 결정조건에 대한 내용을 칠판에 적어가면서 원리를 설명했다.

학생들은 이해한 듯 고개를 연방 끄덕였다. 문제풀이 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갔다. 일반 학교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은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가 강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끝장 일대일 지도학습이 이뤄졌다. 강의실에선 학업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도 이뤄졌다.

40분 수업에 10분 휴식시간이 주어졌지만, 학생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여 강사를 붙잡고 수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느라 바빴다.

일반 학교나 학원 수업과는 다소 차별화된 이 수업은 삼성그룹이 실시하는 저소득층 중학생 학습 지원 ‘드림 클래스’ 방학 캠프다. 저소득층 중학생이 대학생들에게 방학 중 학습 지도를 받도록 하는 삼성그룹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 전남 도사지역 학생 300명이 지난달 29일부터 서울대 관악캠퍼스

전남 섬마을 중학생 300명 초청...학습하며 꿈·공부에 동기부여



지난 8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220동 201호 강의실. 캠프에 참가한 한 여학생이 담당 강사로 부터 1:1 학습지도 받고 있다. <삼성그룹 제공>

에서 합숙하면서 영어·수학 학습지도 받고 있다. 교육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캠프에 참여한 중학생들은 학습 의지는 있지만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학생들로 전남도 내 각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남교육청이 선발했다.

한 반당 인원은 10명. 서울대생이 한 반이 돼 1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155시간 학습지도한다. 방학 캠프가 계속될수록 학생들의 학습태도도 달라지고 있다. 강사들이 맞춤형·자기주도형 방식으로 학습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됐다. 집중력도 향상됐다. 자

신감도 부족 늘었다. 완도 납도 중 1년 강예슬(14)양은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속속 들어올 정도로 수업이 너무 재밌다. 지금까지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데, 서울대 다니는 선생님께서 일대일 지도를 받아 너무 좋다”며 “선생님이 품인 데, 캠프 기간 선생님의 학습법을 배워갈 생각”이라고 수업은 미소를 지었다.

담당 강사 조은우(여·21·서울대 사범대 특교육과 2년)씨는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는 데도 자기주도 학습법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레아만 혼자서도 공부

에 재미를 갖고 할 수 있다”라며 “처음과 달리 학생들이 자기학습법을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서울=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하반기 대기업 문 ‘활짝’

삼성·SK·현대차 등 4만여명 채용

삼성과 SK 등을 시작으로 주요 대기업 집단이 내달부터 하반기 채용에 들어간다. 경기불황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 채용 규모는 상반기보다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내달 삼성·LG·현대차 등 채용 ‘붐물’ = 12일 주요 그룹에 따르면 삼성이 가장 먼저 채용을 시작한다.

하반기 1만3050명을 뽑을 계획인 삼성그룹은 내달 3일 신입사원 전형에 들어간다. 삼성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4500명, 경력사원 2500명, 전문대졸 사원 1500명, 고졸사원 40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삼성의 올해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4% 확대된 2만6100명이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절반씩 나눠 뽑는다. 삼성은 대졸 신입사원의 10%를 각 대학 총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출신으로 채용 계획이다.

내년에도 저소득층 대졸사원을 연간 450명 선발하고 현재 25%안팎인 지방 소재 대학 출신 사원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

LG그룹은 하반기에 7700명을 뽑는다. 이 가운데 대졸 신입사원은

3000명, 대졸 경력사원은 800명, 고졸사원 3400명, 기타 기능직은 500명이다.

채용규모는 지난해 하반기(4000명)보다는 대폭 확대됐고 올해 상반기(7300명)보다는 400명 늘었다.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등 주요 계열사들은 전형 방법을 확정하고 내달 채용에 들어간다.

SK그룹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포함, 내달 초 하반기 공채 일정을 시작한다. SK그룹은 이번 하반기에 3000명을 선발한다. 상반기에 이미 4100명을 뽑은 SK그룹의 올해 채용규모(7100여명)는 지난해보다 40% 확대된 것이다.

GS는 이르면 내달 채용을 시작한다. GS는 하반기 모두 1400명을 계열사별로 선발하며 이 가운데 대졸 신입사원 350명, 고졸사원 1000명을 각각 뽑는다.

내달 채용을 시작할 계획인 현대차 동차그룹은 아직 세부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

현대차의 올해 채용 규모는 7500명으로 그룹 출범이후 최대 규모다. 이를 고려해 조만간 하반기 채용인원

을 정할 계획이다. 롯데그룹은 내달 4일부터 채용을 한다.

◇10월 이후에도 채용 줄 이어 = 10월 이후 채용을 시작할 계획인 대한항공은 하반기 1355명을 선발한다.

채용규모는 상반기(1311명)보다 소폭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직 300명, 객실승무원 805명, 운항승무원 85명, 기술직 165명이다. 하반기에 고졸 사원을 뽑지 않는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15명, 올 상반기에는 18명 등 고졸사원을 채용했다.

통신사 9월 말에서 10월 초 하반기 공채를 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내주 채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채용 규모는 200여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기업도 속속 계획 확정할 듯 = 포스코는 하반기에 4800명을 선발한다. 상반기(1900명)보다 인원이 대폭 늘었지만 올해 전체 채용인원(6700명)은 지난해와 같다. 하반기 2280명의 고졸사원을 채용한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3400명을 뽑는다. 대졸신입이 650명이며 나머지는 경력직과 생산직이다. 하반기에는 고졸 공채사원을 뽑지 않는다. 한화는 상반기에 이미 고교 3학년생 500명을,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채용을 전제로 한 인턴사원 700명을 선발한 바 있다.

연말뉴스

전기 면도기 수입가 ‘뽕튀기’

치솔 등 3배 높여 판매

수입 전기면도기와 전동치솔의 소비자 가격이 수입가보다 2.6배 이상 높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면도기 54종과 전동치솔 14종의 평균 수입가격, 소비자가격, 유통구조, 판매점별 소비자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면도기의 소비자가격(부가가치세 제외)은 수입가격의 2.6배, 전동치솔은 2.71배였다.

수입업체는 전기면도기를 평균 6만 841원에 들여온 뒤 중간상인이나 소매업체에 10만2386원에 넘겼고, 이들은 다시 소비자에게 16만1947원에 팔았다. 전동치솔은 수입가격이 평균 3만 8068원, 도매가격은 7만6996원인데,

소비자가격은 10만3258원에 달했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몰, 오픈마켓 등 가격을 비교하면 모두 오픈마켓에서 가장 싸다. 오프라인 판매점은 평균가격, 백화점 온라인몰과 오픈마켓은 최저가격으로 조사했다.

전기면도기의 경우 오픈마켓의 소비자가격이 동일 제품을 가장 비싸게 파는 오프라인 판매점 가격보다 평균 35% 저렴했다. 가격차이는 최소 3.1%에서 최대 50.6%였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의 가격 수준이 가장 저렴하고 애프터서비스(A/S)도 대부분 제공되는 것으로 확인돼 오프라인에서의 제품 구매를 권장했다. 다만 실제 재고가 있는지, 교환이나 환불이 되는지, 사려는 모델이 A/S가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말뉴스

삼양라면 60원 ↑

식음료 제품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삼양식품은 10일 삼양라면을 비롯한 6개 라면 가격을 각각 50~6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격 인상은 2008년 3월 이후 4년4개월만이다. 이에 따라 삼양라면은 700원에서 760원으로, 수타면은 700원에서 750원으로 값이 오른다.

컵 삼양라면은 800원에서 850원, 큰컵 삼양라면은 1000원에서 1050원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회사측은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해졌다”며 “최소한 범위에서 원가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도 그간 역효과를 낸 가공식품 가격이 잇따라 올라 식탁물가에 부담이 결릴 조짐이다. 앞서 롯데칠성음료가 칠성사이다 등 10개 제품 가격을 올렸고, CJ도 햇반값을 이달부터 인상했다. /연말뉴스

■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조정 매수 기회...자동차·건설 유리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되고 있다. 7월 27일 ECB 드라기 총재의 유로존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이후, 8월 10일 현재까지 거래소 현물시장 기준으로 4조 9,592억 원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도 3조 7543억 원의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완화되면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본격화되고 있다.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3월 고점 이후 하락 폭의 61.8% 되돌릴 지수대인 1,970~1,980선까지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지난 5월 지수 급락 직전인 1,950선은 두터운 매물구간으로 단기적인 매물소화 과정과 급등 이후 차익 물량 출회에 따른 조정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 중국의 경기부양 기대감과 지속적인 외국인 자금유입 가능성이 유호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조정국면을 매수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여전히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배경을 정책적 모멘텀 측면에서 살펴보면 미국 고용지표와 주택지표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경기둔화 우려감을 일부 떨쳐내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8월말 짝슨을 미팅과 9월 FOMC를 앞둔 정책 기대감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다. 유럽에서는 9월 ECB 금정위에서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 시행 가능성과 함께 ESM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우호적인 결정이 전개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세에 더욱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분간 경기민감주 중심의 매매전략 속에 화학, 기계, 자동차, 하드웨어, 건설 중심의 저점매수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화학, 기계 등의 경우 아직까지 본격적인 실적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와 정책모멘텀이 유호한 상황에서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2012 CONCERT

아직도 못다한 노래...

남진

아직도 못다한 노래...

2012. 9. 22(토) 오후3시,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광주MBC | 주 관 | 커뮤니케이션 | 제 작 | 이나이스엔터테인먼트

| 예매처 | 인터파크, 티켓링크 | 문 의 | 220-0541 · 1600-4534

| 티켓가격 | VIP석 99,000원, R석 88,000원, S석 77,000원, A석 66,000원